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 2018. 2. 11(월) 총 4매(본문2, 붙임2)		
담당 부서 자동차정책과	담당 자 • 과장 이상일, 사무관 나귀용, 주무관 박성준 • ☎ (044) 201-3840, 3841			
보 도 일 시		2019년 2월 1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11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싼타페™ 헨디, 국산차 제1호 자동차 인증품 출시 물성시험 등 9개 항목서 OEM부품과 동등한 성능품질...가격은 약 65%

□ 국산차로는 최초로 인증받은 대체부품(약칭 “인증품”)이 이번 달 14일에 본격적으로 출시됨에 따라, 자동차 수리시장에 국산차 인증품 사용이 가능해졌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, 국내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제도*를 도입(‘15.1월)하였고,

*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(한국자동차부품협회)이 대체부품을 심사하여 성능이나 품질이 OEM부품과 거의 유사함을 보증하는 제도

○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완성차·부품업체 간 상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, 업무협약(MOU)을 체결(‘17.9월)하였다.

○ 보험업계도 인증품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가 인증품을 선택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가격의 일정분(25%)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보험상품(특약*)을 출시(‘18.2월)하였다.

* (적용대상)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, 가해자 불명사고, 일방 과실사고에 적용 (적용방법)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,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

□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인 창원금속공업(주)은 국산차로는 최초로 현대 싼타페™ 모델의 전방 좌·우 휠더에 대한 인증을 완료(1.15)하고,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하였다.

○ 휠더는 소비자들이 사고로 인해 빈번히 수리하는 외장부품 중에 하나로, 해당 기업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싼타페™ 휠더를 선정하여 부품개발*(통상 1~1.5년 소요)에 돌입하였다.

* 「도면제작 → 금형설계 → 시뮬레이션(3차원 모델링) → 금형제작 → 시제품 생산 → 금형수정 → 인증의뢰 등」

□ 이번에 첫 출시된 인증품에 대해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물성시험, 합차시험 등 9개 항목*을 시험한 결과, OEM부품과 품질·성능이 거의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(물성시험 7개) 육안검사, 부품두께, 인장강도, 아연도금 확인, 프라이머코팅 두께·접착력·내부식성 / (합차시험 2개) 실차적용성(높이 차, 틈새 차)

○ 인증품은 부품두께 기준(OEM부품과 차이: 0.2mm 이내), 실차 조립기준(OEM부품과 차이: 1.5mm 이내) 등 모든 시험기준을 충족하였으며, 인장강도는 OEM부품보다 더 높게(좌: 약 17%, 우: 약 13%) 측정되었다.

○ 인증품 가격도 BMW, BENZ 등 외산차 인증품과 유사하게 OEM부품의 약 65%에서 형성(한국자동차부품협회 추정)될 것으로 보여,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한 인증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이상일 과장은 “이번 인증품 출시는 다양한 부품업체의 인증품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면서,

○ “앞으로도 완성차·부품업체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인증품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나귀용 사무관(☎ 044-201-384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대체부품 인증제도 개요

- (개념)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, 부품업체가 제작한 부품의 성능·품질을 심사·인증(기준: OEM부품)함으로써, 인증된 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('15.1 시행)
- (인증품목) 외장(38품목), 등화(18품목), 기능·소모성 부품(59품목) 등 총 118품목
 - (외장부품, 38품목) 차량 외부에 장착하여 공기저항, 소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품 (범퍼, 휠더 등)
 - (등화부품, 18품목) 지형지물 인식, 방향지시, 경고 등을 위해 전방 및 후방에 설치하는 부품 (방향지시등, 제동등 등)
 - (기능·소모성 부품, 62품목) 차량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부품 (엔진오일, 에어필터 등)
- (인증절차) 인증기관의 서류, 공장심사를 거친 후, 시험기관*(6곳)이 부품업체가 생산한 대체부품이 OEM부품과 품질이 유사한지를 시험
 - * (외장부품)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,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
 - (등화부품) 한국광기술원
 - (기능·소모성 부품)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, 자동차융합기술원
- (사후관리) 자동차안전연구원을 감독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미 출시된 인증대체부품에 대해 사후조사 시행
 - 조사 결과 품질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, 국토부는 인증기관에 해당 부품의 인증취소, 판매중지 및 결함시정 지시

참고 2

국산차 1호 인증품 사진



싼타페TM 전방 좌측 헨더



싼타페TM 전방 우측 헨더